

# 小兒醫方의 板本比較

李佳浪 · 安相佑<sup>1)</sup>

## A Comparison on the Editions of So A Eui Bang

Lee Ghaeun · Ahn Sangwoo

『So A Eui Bang』, written by Choi Kyuheon, was first published in 1912 at Kwang Hak Seo Po. There are four different editions of So A Eui Bang of three different publishing company. In this study, I reveal that Kwang Hak Seo Po's edition is the original work of the author and present each edition's different characters by comparing each other.

keyword : Soa-Euibang, Choi Kyuheon,

---

### 1. 서론

小兒醫方은 1912년 夢菴 崔奎憲(1846~ ?)의 저작으로, 이후 4가지의 다른 판본으로 간행되어 현재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는 소아과 처방집이다. 저자 최규헌은 대한제국 말기 고종황제 재위 시에 어의로서 소아과 치료에 탁월한 공적을 인정받아 '3登郡守'에 임명되었기에 당시 巷間에서는 '소아의 扁鵲 崔三登'이란 별명을 얻었으며, 행림계의 扁倉으로 떠받들어졌다. 19세 때인 1864년 甲子式年試에 의과로 등과하였고 그 뒤 1892년 太醫院典醫로서 삼등군수를 역임하였다.<sup>2)</sup>

현재 1936년 活文社에서 출판한 『夢菴遺稿 小兒醫方』은 韓國醫學大系<sup>3)</sup>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을 출판한 李基榮, 李命七이 마치 원 저자인 양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

---

1) 한국한의학연구원

2) 안상우. 고의서산책166 소아의방, 민족의학, 2003.7.28일자

3) 김신근, 韓國醫學大系34권, 여강출판사, 1981

판본이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나 韓國醫學大系에 마치 초간본인 것처럼 소개된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이후 행림서원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하나가 『新譯註解 小兒醫方』이고 또 다른 하나는 『丁茶山先生 小兒科秘方』이다. 이 두 종류는 주요 내용은 물론 글자까지 같으며 단지 제목만 다른 것으로, 丁茶山이라는 실학자의 이름이 원작자인 것처럼 제목에 붙여졌기 때문에 후대에 더욱 혼란을 가져왔다. 이처럼 출판된 지 100년도 되지 않은 비교적 근대의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와 출판 연대에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소아의방의 저자와 초간 연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912년 초간본을 찾아 본고를 빌어 소개하는 한편,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좀 더 뒤에 나온 판본들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夢菴 崔奎憲선생의 또 다른 유고로 『經驗秘方 小兒寶鑑』이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처방만을 모아놓은 것으로 『小兒醫方』과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고, 그 진위 여부와 내용 분석은 차후의 논문에서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 II. 본론

### 1. 1912년 廣學書舖에서 출판된 『小兒醫方』

夢菴 崔奎憲은 高宗 재위 말년에 太醫院 典醫로서 삼등군수를 역임하였다. 1912년 廣學書舖에서 출판된 『小兒醫方』에는 저자의 序文과 역시 태의원 전의였던 密陽 朴準承<sup>4)</sup>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崔奎憲선생의 序文을 보면 서문을 쓴 시기를 ‘明治四十五年 壬子仲春 夢菴居士 崔奎憲書’라고 쓰고 있고, 책 마지막장의 발행 연도는 ‘大正元年八月三日發行’이라 되어 있다. 明治 45년과 ‘大正 1년은 1912년 같은 해로 7월30일자로 연호가 바뀐다. 따라서 서문이 지어진 시기와 책이 발행된 시기는 불과 몇 달 차이가 나지 않는 것<sup>5)</sup>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廣學書舖에서 출판된 『小兒醫方』이 저자의 원본에 가까운 초간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판본은 현재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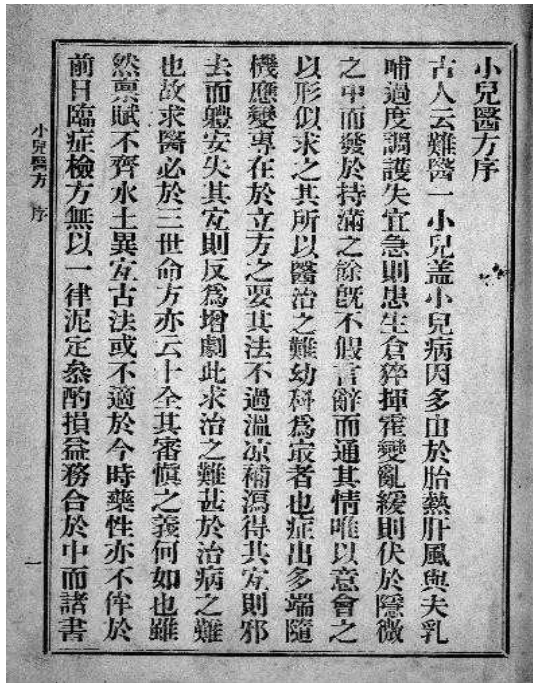
이 책은 定價金八拾錢으로 가격이 붙어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을 보면 그다지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현재 1936

4) 박준승은 말문에서 崔奎憲을 ‘吾友 崔夢菴’이라 불렀으며, 그 역시 전의 출신으로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음을 짐작케 한다.

5) 1912년은 명치 45년이자 대정원년으로, 메이지 천황이 사망하고 다이쇼 천황이 즉위한 해이다. 중춘은 음력 2월에 해당하므로 발행일이 양력이라고 생각할 때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년본이 초간본으로 잘못 알려진 까닭은 아무래도 김두종의 기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韓國醫學史에서 『小兒醫方』에 대하여 ‘…… 호는 夢菴인데, 그의 遺稿 『小兒醫方』은 李基榮, 李命七에 의하여 1936년 6월에 처음으로 간행되었고, …… 6)’라고 소개하였다.

그림 1. 1912년 광학서포 발행본 小兒醫方 서문



이것은 초간본과 1943년 행림서원에서 출판된 판본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夢菴遺稿 小兒醫方』만을 토대로 쓴 내용인 것으로 짐작된다. 행림서원 발행본에도 서문과 발문은 실려 있기 때문에, 이를 보았다면 1936년 처음 간행되었다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韓國醫學史가 최초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국의학통사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 책의 기록이 후대 『小兒醫方』의 간행연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小兒醫方』초간본의 특징은 전문이 한문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간혹 약재 이름에 우리말 주석을 달아 놓은 것 이외에는, 醫論과 病症, 治方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이 국한문 혼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달리 초간본은 순한문으로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차가 앞에 수록되어있기는 하나, 본문 중에는 내용과 제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본문 앞머리 단어에 □표시를 하여 제목으로 삼은 것도 특징적이다. 이를테면 『手軟』者筋縮不能舒伸宜’라는 식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저자 최규현의 원고에 좀 더 가까운 모

6) 김두종, 韓國醫學史, 탐구당, 1981, 467쪽

습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판본에서는 출판할 때 재편집과 교정, 증보, 교열 등 가공단계를 여러 차례 거치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2. 1936년 李基榮, 李命七이 언해하여 活文社에서 출판<sup>7)</sup>한 『夢菴遺稿 小兒醫方』

『夢菴遺稿 小兒醫方』은 韓國醫學大系(34권)에 수록되어 현재 널리 알려진 판본으로, 흔히 초간본으로 잘못 알려진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은 1912년 출판된 초간본을 언해한 것으로, 내용이 더 추가되거나 삭제된 것은 없다.

이 책은 본문과 제목이 구별되지 않던 초간본과는 달리, 따로 제목을 뽑아 본문과 분리하였다. 표1은 소아의방의 세 가지 판본의 목차를 비교한 것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별되는 것만 뽑아서 열거한 것이다.

목차상 주요 내용의 편제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夢菴遺稿 小兒醫方』에서는 병명 뒤에 症이라는 글자를 일일이 붙인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본문과 제목을 구별하기 위해 역자가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목을 고치거나 뺀 것은 있어도 본문은 차이가 없고 순서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 판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간본에 실려 있던 서문과 발문을 삭제하고 ‘修輯譯出者 李基榮 李命七 識’라고 밝힌 序文을 붙임으로써, 후대인으로 하여금 마치 이 판본이 夢菴 사후에 남겨진 처방과 기록들을 李基榮, 李命七이 모아서 출판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그 내용과 편제가 1912년판 『小兒醫方』과 일치하므로 새로 엮은 책이라 보기 어렵고, 한문으로 된 『小兒醫方』 초간본을 언해한 번역본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 판본에는 유난히 誤字와 脫字가 많은데, 일부 판본에는 正誤表가 실려 있다. 活文社본 초판 출간 후 교정을 봐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正誤表에 실리지 않은 오자도 상당수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세 가지 판본 중에서 가장 조잡하며 정밀하지 못하다. 또 인쇄 상태도 불량해서 일제강점기 말기의 열악한 출판여건과 당시 풍토를 엿볼 수 있다.

7) 김신근, 韓國醫學大系, 34권 해제

표 1. 『小兒醫方』 판본의 목차 비교

小兒醫方	夢菴遺稿 小兒醫方	新譯註解 小兒醫方
小兒調護法	小兒調護法	小兒調護法
察色	察色法	察色法
脈法	脈法	脈法
初生解毒	-	-
初生諸症	初生諸症	初生諸症
∴	∴	∴
夜啼	夜啼症	夜啼症
胎驚癇風	胎驚癇風	胎驚癇風
肝氣諸症	肝氣諸症	肝氣諸症
急驚	急驚症	急驚
慢驚	慢驚症	慢驚
癇	癇症	癇
痊瘥	痊瘥症	痊瘥
項軟	項軟症	項軟
身軟	身軟症	身軟
筋骨痿軟	筋骨痿軟症	筋骨痿軟
手軟	手軟症	手軟
∴	∴	∴
霍亂	霍亂乾濕症	霍亂
∴	∴	∴
大便不通	大便	大便不通
小便不通	小便	小便
∴	∴	∴
蛔蟲	蛔蟲	蛔蟲
寸蟲	寸白蟲	寸白蟲
∴	∴	∴
皮附癩疹癩疹麻	皮	皮
疹	手	手
手	足	足
足附膝脚	∴	∴
∴	解百藥百物毒	諸中毒
解毒	附錄	附錄
附錄 丸藥		

3. 1943년 杏林書院에서 출판한 『新譯註解 小兒醫方』

현재 가장 많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책으로, ‘新譯註解’라는 부제에서 보여주듯이 『小兒醫方』을 새로 해석한 것이 특징이나, 註釋이 달려 있지 않고 초간본과 비교하여도 내용이 고쳐지거나 추록된 것이 없다. 이 책은 李基榮, 李命七의 언해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초간본을 참조하여 출판한 것이다. 1936년 언해본이 저본이라는 것은, 표 1에서 보듯 목차가 거의 일치하는 점, 언해본에서 비롯된 번역투 문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표2는 본문 중 같은 구절의 비교 예이다.

표 2. 小兒醫方 外感諸症門의 각 판본별 본문 비교

比較 板本	對比 文句
(初刊本)小兒醫方	感冒風寒身熱鼻塞無汗或挾滯腹滿宜
夢庵遺稿 小兒醫方	感冒風寒은 身熱鼻塞하고 汗氣가 無하며 或挾滯하야 腹滿한 자二 宜用左記方藥이니라
新譯註解 小兒醫方	風寒에 感冒되어 身熱·鼻塞·無汗等症을 呈하거나 或挾滯로 腹滿한 者에 是는 左記方藥을 用할지니라

또한 이 판본이 비록 1936년 판본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1912년 『小兒醫方』 초간본을 참고하여 교정하였다. 이것은 1936년 판본에 보이는 많은 오자와 탈자 등이 수정되어 있는 것과 1936년판에 빠져 있는 崔奎憲의 序文과 朴準承의 跋文이 다시 삽입된 것을 보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고찰결과를 종합해 보면, 『新譯註解 小兒醫方』은 1936년 언해본을 기본으로 하고 1912년판을 참조하여, 문체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오자, 탈자를 수정해서 출판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번역과 편집 형태인데, 지금까지 없던 소제목을 달아 본문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제목, 의론, 병증, 처방을 나누어 독자로 하여금 보기 쉽도록 편집하였다. 책의 가장 마지막에는 附錄 難字釋義가 수록되어 있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글자만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보기에 비교적 평이한 勻, 尢, 肝 등의 글자까지도 음과 뜻을 실어 놓았다. 이는 후대로 오면서 한자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학습의 효과를 꾀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처방색인도 덧붙여져 있는데 이러한 점은 『小兒醫方』이 보다 대중적인 서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杏林書院에서 출판된 『簡明詳解 丁茶山先生 小兒科秘方』

이 책은 판본상 앞에서 소개한 『新譯註解 小兒醫方』과 일치하고 단지 제목만 바뀐 책으로, 초기에 新譯註解 小兒醫方이라는 이름으로 퍼내다가 중간에 제목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장에 ‘夢菴先生の 醫學的 造詣는 그의 畏友오 我東의 哲人 丁茶山先生의 陶冶이였음으로 本書의 編輯은 主로 茶山先生의 指導에서 完成된 것이다<sup>8)</sup>’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茶山 丁若鏞(1762~1836)의 생몰연대와 활동시기를 감안할 때 글자 그대로 믿기 힘들다. 다산은 저자 최규헌이 출생하기 10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직접 지도를 받기에 불가능하며 더욱이 畏友란 호칭은 터무니없는 표현일 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茶山이 麻科會通 등 소아과질환

8) 崔奎憲, 간명상해 丁茶山先生 小兒科秘方, 행림서원, 1954, 1쪽

의 대표적인 마진과 두창치료에 있어서 당대 대표적인 전문의 학자였으며 많은 의학저술을 남긴 사실로 미루어 夢庵이 다산의 제자나 서적을 통해 私熟했을 가능성만 점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崔奎憲과 정약용의 관계에 대한 문헌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다분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丁茶山의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 앞으로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 III. 결론

본 논문은 소아의방의 저자와 초간 연대를 명확히 밝히고, 지금까지 출판된 소아의방의 판본을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小兒醫方』은 夢菴 崔奎憲 선생의 저작으로, 1912년 廣學書舖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출판년도의 저자 최규헌의 서문 수록되어 있어 저자 생존시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당해연도 저자의 서문이 수록되어 원고에 가장 가까운 책이라고 생각된다. 현존하는 판본 중 가장 우수하며 정확한 것이지만 유통본이 적고 소장처가 알려지지 않아 열람하기 어렵다. 현재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에 1책이 소장되어 있다.

둘째, 이후 출판된 판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각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936년 李基榮, 李命七이 펴낸 夢菴遺稿 『小兒醫方』은 초간본을 언해하여 국한문 혼용체로 펴낸 것으로, 저자의 序文과 跋文이 누락되었고 대신 譯者의 序文이 수록되어 있다. 처음으로 언해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나, 오자와 탈자가 많고 판본이 조잡하다. 1943년 행림서원에서 출판된 新譯註解 『小兒醫方』은 1936년 언해본을 근간으로 하고 초간본을 참조하여 새로이 번역 출판한 것이다. 소제목이 수록되고 본문 단락이 보기 쉽게 나뉘어 있어 보기에 편하며 현재 가장 널리 읽히고 있다. 원저자 최규헌의 서문과 박준승의 발문을 다시 수록하였다. 丁茶山先生 小兒科秘方은 新譯註解 『小兒醫方』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제목만 바꾸어 다시 출판한 것이다. 현재까지 丁茶山과 관련이 있다는 문헌적 근거는 없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丁茶山을 가탁한 것으로 의심되어 향후 조사확인이 필요하다.

### IV. 참고문헌

崔奎憲, 小兒醫方, 京城: 廣學書舖, 1912.

- 崔奎憲, 新譯註解 小兒醫方, 서울: 杏林書院, 1949.
- 崔奎憲, 簡明詳解 丁茶山先生 小兒科秘方, 서울: 杏林書院, 1954.
- 金信根,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金信根, 韓國醫學大系, 서울: 여강출판사, 1988.
-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81.
-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자가출판, 1962.
- 安相佑. 古醫書散策 166/小兒醫方, 민족의학, 2003.7.28일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